

# CIFC BiAnnual





#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 CONTENTS

- 04 해금협 발간사
-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14 회원사 동정 (신용보증기금)
- 16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보고
  - 18 제4회 미얀마 주택금융 워크숍
  - 20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 28 전문가 초청세미나 –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 30 인터뷰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
  - 32 전문가 초청세미나 –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 36 인터뷰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실」
  - 38 공동 초청연수 지원
  - 39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 42 기고 「최근 북한의 금융관련 변화와 시사점」
- 46 2018년 주요 사업일정

# 발간사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교류기반을 쌓아가며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기관들은 금융협력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하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발표로 이러한 협의회 활동은 한층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의미가 강했던 동남아시아에 국가간 협력수준 제고라는 대외정책적 의미가 부여됨에 따라, 그 동안 저희 협의회가 수행해온 이 지역에서의 금융협력 사업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중요한 활동이 된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평화·상생번영이라는 핵심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인도 간에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다양한 인적 교류, 상호 이해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 간의 적절한 금융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21개 회원기관들은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주요 인프라 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협의회를 일원으로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기관과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간의 호혜적 금융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미래 번영의 공동체 실현에 일조하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국내외 금융협력포럼, 신흥국 공무원 초청연수, 금융전문가 초청세미나,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을 진행하면서 금융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및 회원기관들은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협의회는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500여명의 금융전문가와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또한 금융분야의 주요 트렌드에 관심을 두고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를 금융협력의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여러 형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금융의 주제 하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금융 포용성을 강조하는 주제로서, 저희 협의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더 체계적이며 더 의미있는 금융협력 사업을 펼쳐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관점도 염두에 두면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신남방정책이 포괄하는 국가들 외에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저희 협의회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협력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금융변화를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협의회는 6년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당국의 앞선 지원에 힘입어 여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저희 협의회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협력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2018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손상호**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우리나라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변화를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



손생호

Son, Sangho  
Chairman,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 설립배경 & 회원명부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21개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의 협의체로서 기관별 해외진출 사업을 공유하여 개별적인 진출로 인한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당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및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부의 조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담당자 및 개도국 정책담당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협의회는 매년 금융관련 세미나,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 금융협력포럼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PARTNERS



금융위원회



kif 한국금융연구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21개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의 협의체입니다.  
 ”



현재 아래 21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예금보험공사	 koscom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KCB	 NICE 평가정보 NICE Information Service	 IBK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여신금융협회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 2013

## KEY ACTIVITIES

- Mar.**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워크숍** 제1회 해금협 워크숍
-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 
- May.** **회의** 5월 정례회의
- 
- Jun.** **회의** 6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 세미나
- 
- Jul.** **회의** 7월 정례회의
- 
- Sep.** **기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초청연수**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연수
- 
-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현지포럼**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 
- Nov.** **회의** 2013년 정기총회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 
- Dec.** **강연** 국제결제은행(BIS)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워크숍** 제2회 해금협 워크숍

# 2014

## KEY ACTIVITIES



Jan.	<b>초청연수</b>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Feb.	<b>회의</b>	2월 정례회의
Mar.	<b>회의</b>	3월 정례회의
Apr.	<b>국제포럼</b>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b>회의</b>	4월 정례회의
May.	<b>간담회</b>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b>현지포럼</b>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Jun.	<b>회의</b>	6월 정례회의
	<b>연구사업</b>	「국내금융의 성공적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발주
Jul.	<b>회의</b>	7월 정례회의
Aug.	<b>초청연수</b>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b>세미나</b>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
Sep.	<b>회의</b>	9월 정례회의
Oct.	<b>초청연수</b>	덴마크 Danske Bank 부사장 초청
	<b>회의</b>	10월 정례회의 개최
Nov.	<b>초청연수</b>	미얀마 Myanmar Insurance 초청
	<b>세미나</b>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
	<b>회의</b>	11월 정례회의
Dec.	<b>국제포럼</b>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b>회의</b>	12월 정례회의



# 2015

## KEY ACTIVITIES



- Jan.** 회의 1월 정례회의
- Feb.** 회의 2015년 정기총회
-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개최
- May.**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연구사업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국제포럼 제2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Jun.** 워크숍 제3회 해금협 워크숍  
강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기타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조사
- Jul.**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간담회  
회의 7월 정례회의
- Sep.**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9월 정례회의
- Oct.**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Nov.** 회의 11월 정례회의
- Dec.** 국제포럼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 2016

## KEY ACTIVITIES



- |             |   |
|-------------|---|
| <b>Jan.</b> | <b>회의</b> 1월 정례회의   |
| <b>Feb.</b> | <b>간담회</b>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진출지원 간담회<br><b>회의</b> 2016년 정기총회   |
| <b>Mar.</b> | <b>초청연수</b>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Aloqabank) 초청<br><b>워크숍</b> 제4회 해금협 워크숍<br><b>강연</b> WB 송도사무소 Sameer Goyal 초청<br><b>초청연수</b>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br><b>세미나</b>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 세미나 |
| <b>Apr.</b> | <b>회의</b> 4월 정례회의   |
| <b>Jun.</b> | <b>현지포럼</b>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br><b>회의</b> 6월 정례회의   |
| <b>Jul.</b> | <b>초청연수</b>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및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br><b>세미나</b> 한·미얀마 금융협력 세미나<br><b>회의</b> 7월 정례회의   |
| <b>Aug.</b> | <b>초청연수</b>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기부 소속 공무원 초청<br><b>세미나</b> 한·태국 금융협력 세미나<br><b>초청연수</b>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 부위원장 초청<br><b>세미나</b>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세미나  |
| <b>Sep.</b> | <b>회의</b> 9월 정례회의   |
| <b>Oct.</b> | <b>회의</b> 10월 정례회의<br><b>초청연수</b>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br><b>세미나</b> 한·이란 금융협력 세미나   |
| <b>Nov.</b> | <b>회의</b> 11월 정례회의  |
| <b>Dec.</b> | <b>국제포럼</b>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br><b>회의</b> 12월 정례회의  |



# 2017

## KEY ACTIVITIES



Jan.	회의	부서장급 사전회의
Feb.	회의	2017년 정기총회
Mar.	회의	3월 정례회의
	강연	기획재정부 박종근 국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방향'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 '동남아 주요국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Apr.	회의	4월 정례회의
May.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 · 해금협 공동 토론회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협회
	회의	5월 정례회의
Jun.	초청연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 세미나
	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간담회	금융인프라 수출 간담회
	회의	6월 정례회의
Jul.	공동연수	신용보증기금 · IBK기업은행
	현지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Aug.	기타	반기보고서 발간
Sep.	공동연수	한국신용정보원 · NICE 평가정보
	회의	9월 정례회의
	현지포럼	한 · 태국 금융협력포럼
	워크숍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Oct.	회의	10월 정례회의
	현지포럼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Nov.	국제포럼	제4차 한 · 영 금융협력포럼
	회의	11월 정례회의
Dec.	국제포럼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금융결제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 회원사 동정



###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반기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는 공공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해금협을 통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회원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보는 1976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시 신용경색을 막는 경제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보는 40여 년간 신용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Best practice를 해외에 전파하고 금융韓流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00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총 8개국의 KSP에 참여하여 신용보증기관 설립 및 보증제도 개선 등 사업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몽골 신용보증기금과 베트남 재무부에 정책자문을 파견하여 보증 관련 법령개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은 온두라스를 협력 대상으로 하여 신용보증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KSP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 신보의 역할과 보증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한 '보증제도 기본원칙(Principles for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 for SMEs) 수립 T/F'에 아시아 대표 신용보증기관으로 참여하였고, 올해는 아시아 중소기업금융 발전을 위한 ADBI-OECD book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간된 보고서들은 개도국이 보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금협은 신보를 비롯한 회원기관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제금융협력포럼 및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주최하여 회원기관들이 해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신보도 해금협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이집트신용보증공사를 초청, MOU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과 함께 해금협의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베트남 재무부(2016년), 캄보디아 중앙은행(2017년)을 대상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해금협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영역을 확대하고 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시켜 해외사업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 중인 회원기관 연수프로그램 통합 브로셔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은 해외 정부 및 금융 관계자들과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신보는 해금협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반기보고서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 모두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영역을 확대하고 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시켜  
해외사업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협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Jan.

- 회의 1월 정기총회 사전회의
- 워크숍 제4회 미안마 주택금융 워크숍

Feb.

- 협의회 제1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개최
- 회의 2월 2018년도 정기총회

Mar.

- 회의 3월 정례회의
- 국제포럼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Apr.

- 회의 4월 정례회의

May.

- 협의회 제2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개최
- 세미나 세계은행 서울금융지문센터와의 협력방안
- 회의 5월 정례회의

Jun.

- 세미나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 회의 6월 정례회의
- 초청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몽골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 6/18-22



# 2018

## 생반기 주요사업보고

／  
CIFC BiAnnual

# 제4회 미얀마 주택금융 워크숍

The 4<sup>th</sup> Myanmar Housing Finance Workshop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8년 1월 29일(월) KB금융타워에서 개최된 KB국민은행의 제4회 미얀마 주택금융 워크숍 일정 중 협의회와 회원사의 주요 해외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금융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 워크숍에는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한 센터장, 한국주택금융공사 황재훈 팀장, 한국예탁결제원 이용준 팀장, 예금보험공사 김현석 수석책임역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미얀마 기획재정부 U Maung Maung Tint 총괄국장, 미얀마 건설부 U Min Htein 총괄국장, 미얀마 중앙은행 Daw May Khine Win 부총괄국장 등 미얀마 연수단 14명과 NICE평가정보 문영배 전무 등 해금협 회원사 담당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시간	내용
<b>[ 세션 3 ]</b>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회원사 소개	
14:00~14:15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한 센터장
14:15~14:3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사업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황재훈 팀장
14:30~14:45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사업 소개 한국예탁결제원 이용준 팀장
14:45~15:00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및 국제협력사업 소개 예금보험공사 김현석 수석책임역
15:00 ~15:30	질의응답



## Session 3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김정한 | 센터장 |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한 센터장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주요활동, 미얀마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공공 및 민간)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총 21개의 회원사들이 소속되어있으며, 회원사들이 그 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금융협력포럼, 초청연수, 금융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활발하게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얀마와는 초청연수,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주택금융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사업 소개

황재훈 | 팀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황재훈 팀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주택연금 등에 대해 소개하고 공사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설립된 100% 정부소유의 공기업으로 국민의 생애 주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사의 주요 금융 상품으로는 사회 초년생 등 주택 임대인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증자리 대출 및 전세 적격대출, 노령인구와 은퇴자를 위한 주택연금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와 MOU를 체결해왔으며, 향후 MOU 협약 기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사업 소개

이용준 | 팀장 | 한국예탁결제원

이용준 팀장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 및 주요업무, 해외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예탁기관이나 단순 교환소의 역할을 넘어 채권 등록, 전자투표, 장외거래 청산 및 결산, 자금 예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FundNet, 전자투표 플랫폼, SEIBro 등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와 국가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예탁원의 주요 해외 협력사업으로는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과 진행한 지식 공유 프로젝트를 꼽았고 최근 진행한 해외 프로젝트로는 컨설팅, IT 관련 기술 자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대표적인 해외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진행한 기술자문, 컨설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와 베트남과 진행한 컨설팅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및 국제협력사업 소개

김현석 | 수석책임역 | 예금보험공사

김현석 수석책임역은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와 공사의 주요 업무,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보험에 가입된 예금주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개발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예금지는 손실 위험을 예방하고, 부실 은행은 банкрот 및 금융공황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목표로 1996년에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을 법적 근거로 자금관리와 지급 불능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회복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2010년부터 임시 파견, 세미나, 자문, 초청연수, 기술원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른 국가의 예금보험기관과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또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중인 One Asia with KDIC라는 국제협력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미얀마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 한-미얀마-ADB 금융포럼, One Asia with KDIC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Vietnam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은행연합회, 베트남 은행협회는 2018년 3월 22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금융위원회, 해금협 회원사와 은행연합회 회원사로 이루어진 78명의 한국 출장단과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은행협회 소속 기관 및 금융기업, 한국계 금융기관 등 베트남 전 금융업권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베트남 금융산업 협력방안'으로 베트남 은행협회 Nguyen Toan Thang 사무총장의 개회사,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의 환영사,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베트남 중앙은행 Le Minh Hung 총재의 축사로 시작했다. 개회식 이후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핀테크 협력 MOU를 체결하며 양국 금융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앞장섰다. 포럼은 '①핀테크의 발전과 은행 산업의 미래'와 '②양국간 금융산업 협력 방안'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4명의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들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시간	내용	
09:30~09:40	개 회 사	베트남은행협회 Nguyen Toan Thang 사무총장
09:40~09:50	환 영 사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
09:50~10:00	축 사	금융위원회 최중구 위원장
10:00~10:10	축 사	베트남 중앙은행 Le Minh Hung 총재
10:10~10:20	MoU 체결식	
10:20~10:40	기념촬영	
<b>[ 세션 1 ]</b> 핀테크의 발전과 은행 산업의 미래		
10:40~12:10	사 회 주제발표	Vietnam International Bank Tran Nhat Minh 부사장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원장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신한은행 장현기 본부장 베트남 중앙은행 Nghiem Thanh Son 부국장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Can Van Luc 수석 이코노미스트
12:10~13:30	오 찬	
<b>[ 세션 2 ]</b> 양국간 금융산업 협력 방안		
13:30~14:20	Part A 보험산업 협력방안	사 회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실장 주제발표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 패널토론 삼성화재 김병준 법인장 서울보증보험 정범순 하노이지점 지점장 Vietnam Post & Telecommunications Insurance 김강욱 부회장 Prevoir Vietnam Life Insurance Khamsaya Soukhavong 사장
14:20~15:10	Part B 자본시장 협력방안	사 회 한국예탁결제원 최경렬 본부장 주제발표 한국거래소 신희희 상무 패널토론 하노이거래소 Nguyen Anh Phong 부사장 미래에셋베트남 강문경 법인장 Vietnam Association of Securities Business Hoang Hai Anh 부회장
15:10~15:20	휴 식	
15:20~16:30	Part C 금융 인프라 협력방안	사 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김정환 센터장 주제발표 예금보험공사 정찬형 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권인구 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정하원 원장 패널토론 Deposit Insurance of Vietnam Nguyen Linh Nam 부사장 Vietnam 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 Pham Manh Thoung 부사장 Lee & Ko Vietnam 홍성미 변호사

#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Vietnam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Session 1

### 핀테크의 발전과 은행 산업의 미래

Vietnam International Bank의 Tran Nhat Minh 부사장이 사회자로 참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원장(兼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신한은행 장현기 본부장, 베트남 중앙은행 Nghiem Thanh Son 부국장,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의 Can Van Luc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주제발표를 했다.

### 한국의 핀테크 성장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손상호 |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兼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손상호 원장은 핀테크의 개념 및 특징, 핀테크의 성장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핀테크의 개념을 비용 효율적이며 소비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금융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융산업에서의 핀테크 필요성은 소비자 및 기술적 환경변화로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은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는 비금융회사의 진입으로 점차 분할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은행 내부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절차, 소통 등과 관련된 경영전략이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등장 등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 P2P 대출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핀테크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의 은행산업은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이 우수한 편이지만 수익성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전자금융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은행산업이 핀테크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력 및 지점 구조조정 등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은 직접 핀테크 전문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지난 3년간 159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지원한 결과 2017년 전체 벤처투자액 중 30% 정도가 정보통신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 또한 핀테크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핀테크지원센터 설립, 핀테크 테스트 베드 실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핀테크 자문그룹 결성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핀테크는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저비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와 효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라 전망했다.



##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계획

정유신 | 센터장 |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 현황, 핀테크 지원센터 소개, 협력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투자 속도와 규모가 빨라지고, IT가 금융서비스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핀테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는 ① 진입 장벽 완화 ② 핀테크 환경 발전 ③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④ 인터넷 은행과 클라우드 펀딩 등의 4단계 계획을 거쳐 등장하며 현재 한국에서는 결제와 송금 서비스, 인터넷 은행,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 등에 핀테크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과 정책 검토 등 규제시스템 개혁, 블록체인 컨소시엄 설립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 핀테크에 대한 금전적 지원 강화 등 핀테크 환경 활성화가 진행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 소개했다. 한국의 핀테크 사례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Small OTP, 생체 인증 서비스와 KTB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과 영국, 말레이시아의 협업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현재 베트남은 스마트폰 인구 증가, 현금 경제, 소비 방식의 변화 등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 좋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터넷보급률 등을 고려하면 가장 주목할만한 핀테크 분야는 모바일 결제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방안으로는 핀테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베트남 핀테크센터와의 MOU 체결, 투자 기금 결성 등을 꼽았다. 베트남의 현 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한국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사례와 베트남의 주요 핀테크 기업 소개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 신한은행의 디지털 및 핀테크 전략

장현기 | 본부장 | 신한은행

장현기 본부장은 한국의 핀테크 환경, 신한은행의 디지털 전략, 신한 Future's Lab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핀테크 시장은 2017년 10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활동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고 활동 범위도 결제, P2P 대출, 송금에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 그룹과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벤처캐피탈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협력 모델로는 TOSS, blocko, HonestFund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한은행 핀테크 연구소의 블록체인, AI, 신기술 R&D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PC를 통해 자산관리, 인증, 보안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모든 고객을 위한 맞춤형 API이자 신한은행의 오픈 플랫폼인 BaaS와 오픈 플랫폼 연관 서비스인 클라우드 펀딩과 해외 여행자를 위한 환전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BaaS와 같이 대출, 개인금융, 송금 등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오픈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이 은행과 협력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멘토링, 투자, 협력, 글로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국 제1의 핀테크 인큐베이팅 시스템인 신한 Future's Lab을 소개했다. 2015년 설립 이후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IT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2018년에는 베트남 사업 준비, 인슈테크, 생체 기술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 Future's Lab에 참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있는 베트남 기업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Vietnam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베트남의 핀테크 환경

Nghiem Thanh Son | 부국장 | 베트남중앙은행

Nghiem Thanh Son 부국장은 베트남 핀테크의 성장 잠재력, 현주소와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베트남의 핀테크 시장 성장 잠재력으로는 베트남의 높은 청년 인구 비중과 도시 거주민 비중, 훈련된 IT 전문가 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의 발전 등을 꼽았다. 현재 베트남에는 80개가 넘는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펀딩, 개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결제 분야의 기업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베트남의 시중 은행과 협업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고 법적 규제 마련, 자금조달 및 금융인프라 미비 등 완전하지 않은 핀테크 환경 때문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행 베트남 법 체계 안에서는 결제분야의 기업만 지원되는 한계가 있고 과반수의 핀테크 기업이 기업 운영에 규제와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법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베트남 핀테크 기업은 자기자본 혹은 지인, 벤처 자본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러한 재원으로는 사업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자금 조달도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관리, 제한된 네트워크와 솔루션 등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 내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핀테크 연구부서를 마련하고, 해외 핀테크 기업과 베트남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DB와 협력하여 FCV(Fintech Challenge in Vietnam)라는 조직을 설립했으며 향후, National Fintech Day, 핀테크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채택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프로젝트로는 컨설팅, IT 관련 기술 자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대표적인 해외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진행한 기술자문, 컨설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와 베트남과 진행한 컨설팅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와 은행의 협력 사례

Can Van Luc | 수석 이코노미스트 |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Can Van Lu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의 금융 시스템 및 디지털 금융의 기회와 과제, 은행과 핀테크 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베트남의 금융부문은 은행부문과 증권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규제와 감독을 위해 중앙은행 및 그 산하의 은행감독기구와 예금보험기구 그리고 재무부 및 그 산하의 증권 및 보험 감독부서가 있다고 소개했다. 2017년 말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 부문에 대한 여신은 GDP의 약 130%,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GDP의 약 70%이며 채권시장 시가 총액은 GDP의 약 20%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현 디지털 금융 환경(인터넷 보급률과 빠른 경제 성장, 타 아세안 국가 대비 높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बैं킹 보급률, 디지털 결제 시장의 성장 추세 등)과 긍정적인 경제 상황(높은 청년 인구 비율, 지속적인 GDP 성장 등)이 맞물려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도 디지털 은행산업과 핀테크를 위한 다양한 법을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과제로는 사업 모델과 기업 문화의 변화, IT투자와 관련 은행법 체계, 사이버 보안과 위험, 인적자원과 빅데이터 등을 꼽았다. 이어서, 은행과 핀테크의 협력 과정에서 디지털 사업 전략 수립, 불확실성에 대한 규제, 데이터와 정보 공유, IT 양립성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ession 2

# 한·베트남 양국간 금융산업 협력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금융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업권별로 파트를 나누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Part A는 보험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석호 실장이 사회를 맡고,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삼성화재 김병준 법인장과 서울보증보험의 정범순 하노이지점장, Vietnam Post & Telecommunications Insurance의 김강욱 부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Part B는 자본시장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최경렬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거래소의 신홍희 상무, 하노이증권거래소의 Nguyen Anh Phong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로는 미래에셋베트남의 강문경 법인장, Vietnam Association of Securities Business의 Hoang Hai Anh 부회장, Prevoir Vietnam Life Insurance Khamsaya Soukhavong 사장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인프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구성된 Part C에서는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의 김정환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예금보험공사의 정찬형 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인구 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하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토론에는 Deposit Insurance of Vietnam의 Nguyen Linh Nam 부사장과 Vietnam 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의 Pham Manh Thong 부사장, Lee & Ko Vietnam의 홍성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 보험산업 속의 4차 산업 혁명

성대규 | 원장 |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은 인슈테크의 추세,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보험산업도 인슈테크라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슈테크 붐은 인슈테크 투자와 스타트업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삼성화재, 교보, 한화 등 국내 메이저 보험 업체들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슈테크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들도 등장 중이라 설명했다. IoT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주행 빈도와 손해를 감소 접목을 실현한 UBI 프로그램과 GPS 정보를 사용한 자동차 및 여행자 보험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험청구 과정을 가속화하여 고객 만족과 편리함을 높였으며, 빅데이터는 건강예측 모델 개발에, AI는 자동차 위험 분석 및 건적 추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슈테크를 향한 향후 과제로는 규제 샌드박스나 온라인 설명의무 등 최적화된 신규 규제 체계의 마련과 규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온라인 은행업을 꼽았다. 추가로 인슈테크가 향후 보험산업 밸류체인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과 베트남의 CarHistory 서비스 등을 통해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 한국과 베트남의 자본시장 협력

신홍희 | 상무 | 한국거래소

신홍희 상무는 KRX 시장의 개요, 주요 성공 요인, 자본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에 출범 이후 현재 경영관리부,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RX 시장은 크게 주식, 채권, 하이브리드 상품으로 구성된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상품, 해외 시장 등이 포함된 파생상품 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식시장은 시가 총액, 거래 규모 등에서 높은 규모와 유동성을 보이며, 파생상품시장 역시 거래량에서 세계 시장 11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KRX의 성공요인으로는 ①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균형 잡힌 성장 ②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변동성 등 투자 확대에 적합한 이상적인 시장 조건 ③ 적합한 상품 구조, 가격 위험 관리 툴 등 다양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최적화된 시장 관리 ④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한 금융 시장 패러다임에 따른 종합적인 규제 접근 ⑤ 24시간 활성화된 글로벌 거래 시장 참여를 통한 국제 관계 구축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베트남은 주가지수 상승률, 경제성장률, FDI 증가 등을 근거로 높은 잠재력과 향후 발전성을 지닌 국가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베트남의 자본시장은 MoU, 컨설팅, 초청연수 등을 통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파생상품 시장 및 시장결합 부문에서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Vietnam - Korea Financial Cooperation Forum

## 베트남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 과제

Nguyen Anh Phong | 부국장 | 하노이증권거래소

Nguyen Anh Phong 부사장은 베트남 파생상품시장의 설립 및 발전 과정, 시기별 거래현황, 과제와 목표에 대해 발표했다. 베트남의 파생상품시장은 2017년 8월에 개장했으며 시장 구축에 필요한 결정문366을 준비하는데 길고 먼밀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문366이 승인한 3단계 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베트남 정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2017년 8월 선물 파생상품이 최초로 상장되었고, 개장 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 거래량 및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초 평균 거래액은 2.4배, 평균거래량은 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파생상품시장은 파생상품 다양화, 시장 안정성 확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여라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파생상품시장이 집중해야 할 목표로는 기존 상품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 운영, 결정문366에 의거한 새로운 상품 출시, 새로운 지수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 복잡하고 새로운 파생상품 연구, 시장 발전, 신상품 개발, 시장 감시 등을 위한 거래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꼽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노이증권거래소는 관련 연구와 학습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파트너 중, 특히 한국과의 협력관계는 베트남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한국의 예금 보험 개요 및 KDIC-DIV 협력

정찬형 | 이사 | 예금보험공사

정찬형 이사는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공사의 개요, 예금보험공사와 베트남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시스템이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예금보험제도가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2007년 영국의 뱅크런 사태, 2011년 한국의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예금자의 손실을 막고, 뱅크런 위기에 처한 은행을 안정화함으로써 금융 산업에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여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에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자금 관리, 지급불능에 대비한 위험 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베트남 예금보험 기구와 활발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6년 10월 예금보험 분야의 전반적 협력에 대한 첫 MOU 체결 이후 3년마다 갱신을 이어오며, 예금보험제도와 금융 안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베트남 예금보험 기구 및 다른 금융 기관들과 다양한 초청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IT 시스템 개발에 관한 협력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 NPL 관리와 양도 방안

권인구 | 이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권인구 이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개와 NPL(부실채권)을 둘러싼 법적, 금융적 환경 그리고 개별 NPL과 집합 NPL 양도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 산업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 AMC로 기업, 정부, 가계의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한국 경제를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NPL과 관련하여 담보물 판매, 자발적 상환 등 법적 환경 강화와 JV-AMC, ABS 같은 발전된 기술 도입 등 금융 환경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 법원 경매를 통한 신속한 담보 판매가 중요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숨겨진 자산 파악과 자발적 상환이 중요하며, 집합 양도 상황에서는 개별 NPL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어야 NPL 사업 계획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NPL 집합화 및 양도 방법 맞춤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별 NPL 양도 방식에는 ① 원금에 대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한 후 제 3자에게 판매하는 Loan Sale (채권 양수도 계약) ② 채무자에게 추심 편지를 보내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는 자발적 상환 ③ 담보를 통해 대출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인 경매가 있다고 소개했다. 집합적 양도 방법으로는 ① NPL을 알맞은 크기로 재조정하여 판매하는 구조인 Outright Sale ② 대출금, 리스, 신용카드 부채 등을 집합화한 금융 담보물인 ABS (Asset-backed security) ③ KAMCO가 합작투자 특수목적법인으로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협력을 소개했다.

## 한국의 모기지 시장 개편

정하원 | 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하원 원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시장, 공공 모기지의 기본 구조, 공사의 설립배경, MBS 발행, 공공 모기지 상품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장기 모기지에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한국 모기지 상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국채 금리의 지속적 하락과 주택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기지 구조는 단기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적용 등으로 주택가격과 이자율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으나, 향후 DTI 비율을 60% 아래로 낮추고, 장기고정금리 적용과 분할 상환을 통해 주택가격, 이자율 변동에 자유로운 공공 모기지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99년 MBS 발행에 특화된 사단 법인인 KOMOCO로 시작했으나, 이후 2004년에 전반적인 주택금융에 특화되고 모기지 시장 개편을 담당하는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MBS 발행 과정에는 은행, 투자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공사 출범 이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사의 공공 모기지 대출상품으로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상품인 보금자리 대출과 증권화에 적합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인 적격대출을 소개했다. 시중 은행의 모기지 대출과 비교하면 공사의 공공 모기지는 정책 대상과 고정금리, 담보물 최고 금액 설정이라는 특징이 있고, 2014년 이후 한국의 모기지 대출시장에서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대출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에게 이자율 할인을 제공하고 모든 대출 과정은 공사에서 진행하는 윈스톱 과정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고 비교적 단기간 만기 설정이 가능하며, DTI 비율도 보금자리 대출보다 높다고 소개했다. 공공 모기지 성과로 2015년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안심전환 대출 공급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공사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각종 MOU 체결사례와 2018년 베트남과 진행 예정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 전문가 초청세미나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CIFI Invitational Seminar : Cooperation with the World Bank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주관 컨설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금융 트렌드 현황 소개를 통한 회원사 담당자의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의 Sameer Goyal 센터장과 최유진 금융부문 담당관을 초청했다. 동 행사는 2018년 5월 11일(금)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시간	내용
15:00~15:20	Seoul Center Partnering for Development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 최유진 금융부문 담당관
15:20~15:40	Credit Reporting – A Global Perspective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 Sameer Goyal 센터장
15:40~16:00	질의응답



## Seoul Center Partnering for Development

최유진 | 서울금융자문센터 금융부문 담당관 | 세계은행

최유진 서울금융자문센터 금융부문 담당관은 서울금융자문센터와 국내 금융기관 파트너들의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는 국내 최초 국제금융기구 지역센터로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1년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으며 기술지원, 정책자문,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2015년 상설센터 설립 후 국내 파트너들과 더욱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해졌으며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활용해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발전 지원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센터 설립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금융부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금융자문센터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다수와 협력해 왔다.



### \*서울금융자문센터와 한국 금융부문 파트너 협력 사례

**몽골**  
한국에탁결제원은 증권시장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술자원을 제공했다.

**캄보디아/미얀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담당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는 세계은행의 Advisory Services & Analytic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를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 Credit Reporting – A Global Perspective

Sameer Goyal | 서울금융자문센터장 | 세계은행

사미어 고얄 서울금융자문센터장은 신용정보제도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고얄 센터장은 신용정보제도는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접근성 및 공정성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Public Credit Registry) 설립이 증가했으며, 2016년말 이미 190개국 중 165개국에 신용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흥시장의 경우 신용정보제도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는 정부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시장이 발전할수록 신제품 개발, 인프라 투자, 데이터 정제, 고객 서비스 개선 등 여러 가지 빠른 대처가 가능한 민간 크레딧뷰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금융거래 이력 부재로 신용평가가 어려운 고객(thin-filer)들에 대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금융포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 인구 17억명 중 3분의 2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전기요금 납부이력, 전자화폐 계좌, 전자상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신흥국들에게 금융포용의 달성과 더불어 신용정보업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

최유진 | 금융부문 담당관

### Q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센터 1.0과 2.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서울금융자문센터(약칭 '서울센터')는 2011년 10월 한국 정부(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간의 파트너십 하에 탄생하였으며,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등의 우수한 경험과 우수한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의 탁월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금융부문 발전을 위한 양질의 실무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정책자문(policy advic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11.10.11 자 보도자료 참고). 서울센터는 한국 정부에서 출연한 신탁기금(trust fund)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신탁기금은 서울센터 1기(2012-2017)에는 5년간 약 1천6백만불, 서울센터 2기(2017-2020)에는 3년간 약 9백만불 규모입니다. 서울센터는 세계은행의 금융부문 담당 부서(Finance, Competitiveness & Innovation (FCI) Global Practice) 소속이며, 동 부서의 약 750명 직원이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담당하는 금융부문 자문 프로그램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FCI 부서의 동아시아 지역 프로그램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 정부의 이 신탁기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 1기가 한국과 세계은행 간 파트너십의 첫 단추를 끼우는 기간이었다면, 서울센터 2기는 1기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서울센터의 강점에 집중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1기에서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의 수요와 한국의 금융부문의 강점이 만나는 지점이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and soundness) 분야였기에, 2기에는 금융안정 분야의 업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야들입니다.

- *Monitoring and addressing systemic risk and vulnerabilities*

- *Building resili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 *Aligning 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Improving resolution regimes and policies, enhancing crisis preparednes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afety nets*
- *Supporting financial integrity initiatives*
- *Fostering capital markets and other long-term finance*
- *Promoting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또한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면에서도, 1기에는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의 기초를 닦았다면 2기에는 이들 파트너십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호간에 유익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Q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에 있어 서울금융자문센터의 역할 및 기여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세계은행은 전세계의 거의 모든 개도국 및 빈곤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센터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국가별 예산에 얽매이지 않는 신탁기금의 특성상, 서울센터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센터 1기에도 동아시아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4개 실시하였는데, East Asia Regional Integration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 한국 공공 및 민간기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장점들이 세계금융협력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들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우 견실하고 안정적인 제도와 기관들을 만들었고 잘 발전시켜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국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안정 관련 경험과 교훈은 이런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예방 및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이 있어, 다른 선진국보다 자주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곤 하며 세계은행 내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Q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들과의 향후 협력계획이 있으신가요?**

**A**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센터 2기는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강점이 있는 특정 기관들과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평소 저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모든 해금협 회원기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센터 2기에도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은행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저희는 해금협 회원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기를 늘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인력 부족 (현재 정규 직원 2명)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15 군데가 넘는 기관들과 자주 소통하고 협력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평소에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각종 국제협력 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에게 그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FCI 부서 내 세부분야별 전문가와 연결해드리고 필요한 지식/정보나 인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문가 초청세미나

#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8년 6월 21일(목) 부산국제금융센터 39층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세미나 -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을 개최했다.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 동 세미나는 ① 블록체인 글로벌 트렌드와 성공사례 ② 정부의 ODA 및 KSP 사업운영 방안 ③ 회원사 간 해외협력사업 경험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금융중심지인 부산시에서 행사가 개최된 만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박영호 센터장을 초청해 '부산금융중심지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 블록체인 글로벌 트렌드와 성공사례

박세열 | 실장 | 한국IBM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 IBM 박세열 실장은 미래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다. '블록체인 글로벌 트렌드와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트렌드, 구축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세열 실장은 눈여겨 보아야 할 2018 블록체인 트렌드로 아래 다섯 가지를 꼽았다.

01	Pilot 단계에서 운영단계로	운영(Production)서버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됨. 교육과 PoC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02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해짐	2018년에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된 기본기술이 발전됨. 기업이 더욱 성숙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잠재적 유스케이스를 식별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것임
03	기존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관여	2018년에는 최소 하나의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ICO가 기존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 IPO 전문가들은 기술 플랫폼으로 토큰(token)을 사용할 것임
04	목표된 유스케이스에 초점에 지속화	금융무역, 글로벌 결제, 자산/원산지 추적, 스마트계약, KYC. 또한 보안, ID관리, 사물인터넷 및 문서 관리/저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
05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요한 성공요인	컨소시엄 및 업계간 협력 회원이 증가함. 비즈니스 파트너는 사용하기 쉬운 API/도구, 마케팅 지원 및 명확한 수익 공유모델을 통해 생태계 확산에 기여

나아가, 블록체인 적용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현재, 이런 장점들로 다수의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다수의 사례가 적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객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은행이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고객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 관리 플랫폼을 적용</li> <li>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소비자가 신원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된 신원정보 통합 시스템을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 차액결제 서비스로 거래 정산을 위한 표준화된 차액결제 프로세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문제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해결</li> <li>외국환 차액결제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성을 감소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의 주요은행 7개 (KBC, Deutsche Bank, HSBC, Natixis, Rabobank, Societe Generale, UniCredit)가 참여하여 디지털 트레이드 체인 플랫폼 구축</li> <li>효율성이 떨어지는 유럽간 무역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기반의 DTC 플랫폼을 통해 유럽기업의 거래 비용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이아몬드의 원산지 추적하여 거래되는 원석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분산원장 감사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용</li> <li>업계 최초로 다이아몬드 시장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기 및 암시장 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IBM의 왓슨에 구축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문서 기반의 다이아몬드 인증 시스템을 디지털화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GF 채널의 파이낸싱 업무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공급자(Supplier), 비즈니스 파트너 및 IBM간에 파이낸싱 업무 적용</li> <li>기존 시스템의 최장 44일까지 소요되던 분쟁해결을 위한 처리시간이 1일 이내로 단축되어 처리시간이 향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화폐 기반의 청산 결제 시스템 적용</li> <li>청산결제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고, 허가 기반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매우 단순화 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모펀드 산업에서 매니저, 투자자, 관리자 등 네트워크 상의 인증된 사용자가 투자 수명 주기에 걸쳐 펀드를 관리, 지원, 감시하고 단일 소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li> <li>수동이고 구식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혁신함으로써 PE관리 및 투자 프로세스를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여러 당사자 및 기관이 참여하는 자산 보관 프로세스의 지연, 불일치 등의 위험을 해소</li> <li>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신용검증이 필요 없고 운영 프로세스의 60~80% 감소시키고 정보 교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대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li> <li>차례의 증권 대부업체, 은행, 증권거래소, 기관 및 규제 기관이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백오피스 프로세스의 40% 단축 절감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자산 건전성 감사를 위한 공유 원장기술 적용. 향후 단계는 외부 감사들이 원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li> <li>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산 건전성 평가(AQR) 프로세스는 주요 은행 자산에 대한 실시간,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심사프로세스에 새로운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을 부여</li> <li>다국적, 통제 마스터정책과 로컬정책을 정책데이터 및 각종문서의 실시간 공유를 위해 스마트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보험산업의 보상 및 지불 등 프로세스 자동화 및 효율화, 참여자간 가시성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금융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계약을 사용하여 비효율적이고 수동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개선</li> <li>무역 워크플로우의 상태와 문서에 안전하게 공유 접속,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수동 단계 제거 및 불일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LA(Service level Agreement) 관리 플랫폼으로 내부운영 프로세스를 위한 견고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기반의 시스템 적용</li> <li>내부 직원들이 SLA 워크플로우의 상태와 문서에 안전하게 공유 접속 및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수동 단계 제거 및 불일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테일 뱅킹, 신용카드, 보험사 등 계열사들이 따로 제공하는 고객인증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통합 KYC 플랫폼 적용</li> <li>불필요한 중복된 정보와 요청의 감소로 관리 프로세스의 단순화, 고객 만족도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동으로 처리되던 비상장 주식 및 채권 거래 플랫폼을 대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블록체인 기술 활용</li> <li>운영비용 및 청산/결제 시간 감소. 분산환경을 통하여 가용성 개선, 중계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제거함으로써 비용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들간의 보너스 포인트 교환을 위한 플랫폼 적용</li> <li>지능형 POS 단말기에서 오프라인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을 방문하여 직접 스캔을 통해 상품 보너스 포인트를 교환 가능</li> </ul>

암호화폐를 넘어 다양한 산업(금융, 식품, 물류, 에너지, 인증 등)에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처리, 시간절약, 중개자 비용절감, 사이버 리스크 감소 및 위변조 불가능한 신뢰 확신을 통해서 기존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이머징 기술로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만큼 로드맵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초청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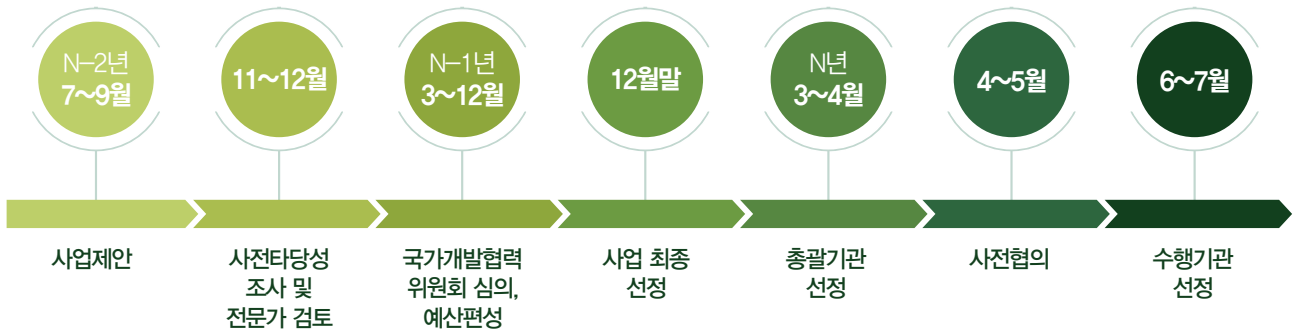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 정부의 ODA 및 KSP 사업운영 방안

송현지 | 사무관 | 기획재정부

두 번째 발표자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송현지 사무관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다수의 해외금융협력협회 회원사가 참여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지식공유 사업은 단순히 기술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닌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환경에 맞는 정책지문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KSP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우즈벡, 헝가리, 쿠바, 이란 등 61개국과 협력했으며 총 996개의 사업을 주재했고 밝혔다.

### KSP 진행절차 1 - 사업준비



### KSP 진행절차 2 - 사업수행





## 회원사 간 해외사업 경험 공유

마지막 발표주제인 회원사 간 해외사업 경험 공유세션은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담당자들을 위해 해외사업 진행 시 겪는 애로사항 및 향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년간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신 금융결제원 오상승 팀장, 예금보험공사 윤성욱 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선준 팀장이 각 기관의 해외협력사업 성과와 진행 중 겪었던 애로사항을 공유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 인터뷰

##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실

한 효 섭 |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실 실장



**Q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실은 다자협력팀과 양자협력팀으로 업무를 나누어 운영합니다. 다자협력팀은 공사의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공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및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International Forum of Insurance Guarantee Schemes) 등 주요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MOU를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에 예금보험제도 자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자협력팀에서는 해외 각국 예보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제도 자문관 파견 및 연구 목적 단기 파견 등 양기구간 정보·인력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예보기구 대상 연수 및 자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글로벌 예보제도 전문 연수프로그램 「One Asia with KDIC」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Q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어떤 기구이며, 여기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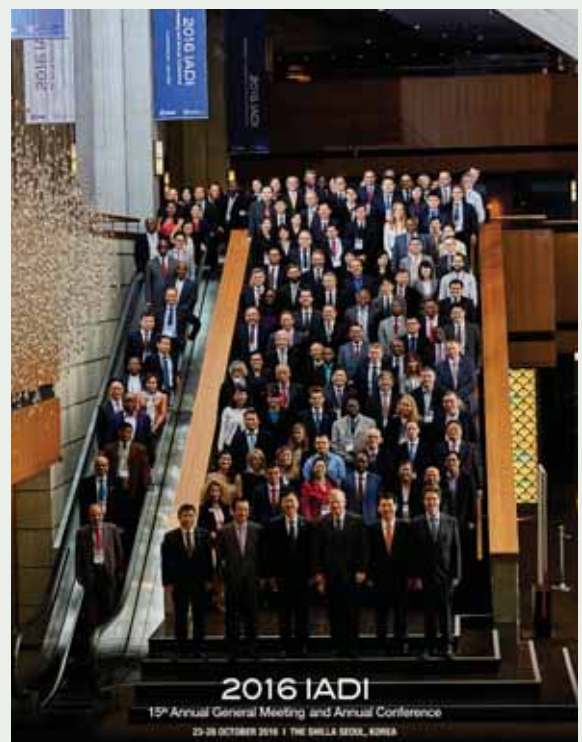
**A**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서 25개 예금보험기구가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국제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전장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회원 수가 증가하여 2018년 6월말 현재 회원 수는 104개에 이르며,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금융관련 국제기구가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안정위원회(FSB) 요청으로 IADI가 제정한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준칙(핵심준칙)」은 IMF·WB가 수행하는 개별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IADI 창립회원이자 이사회의 집행위원(선출직) 기구로서 핵심준칙 제·개정 등 예금보험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ADI의 가장 큰 행사인 연차총회를 두 차례 개최(2003년, 2017년)하고,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두 차례 수상(2012년, 2015년)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 IADI 사무국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IADI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예금보험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등보험료율제, 위기 대응관리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주요 연구에 참여하며, 통합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방식(P&A) 연구소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기구로서 연구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IADI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심의위원장을 맡아 2년 이상 난제였던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지식공유사업 및 연수 노하우를 살려 연수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특히 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회원기구의 요청으로 연수실무를 책임지는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ADI 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회원기구와 협력을 증진해나가고자 합니다.



**Q 예금보험공사의 지식공유사업 및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보제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부터 한국의 선진 예보제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몽골,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해외 예금보험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왔습니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정, 예금보험기구 설립, IT 시스템 구축 등 제도 도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몽골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정(13.1월), 예금보험공사 설립(13.6월), 리스크관리·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16.3월~1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정책지문관 과건(14년~현재) 등 제도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공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간의 연수 및 지문 경험을 바탕으로 예보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17년 글로벌 예보제도 전문 연수프로그램인 「One Asia with KDIC」를 개설하였습니다. 2017년 6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9개국 24명의 예보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고, 다수 참가국으로부터 후속 연수 요청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첫 연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참가자가 직접 자국의 예금보험제도 현황과 이슈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Peer Benchmark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심화과정을 분리하여 연 2회로 확대 개최하고 참가대상국도 중동, 중앙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다변화하여 글로벌 예보제도 전문 연수프로그램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케냐, 요르단 등 8개국 16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을 실시하였고, 11월에 심화과정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개발도상국의 예금보험제도 육성 및 역량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보다 활용하고자, 2017년 9월 세계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작년 12월에 실시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제도 지문프로젝트」입니다.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가 요청하여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부실자산 인수·관리업무에 대해 실무사례 중심으로 공사가 설계하고 세계은행이 후원하는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사 전문가 5명이 강사진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금융안전망 참여기관인 재무부, 감독청, 중앙은행 및 예금보험기구 등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현지연수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 9월 후속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도부터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 간의 활동 경험을 짧게 공유해주세요.**

**A** 네, 말씀하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도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설립 후 2014년도부터 꾸준히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총괄 감사로서, 2015년도에는 감사로서 함께하여 협의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3월 금융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했던 것처럼, 그동안 많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국내의 금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이나 관련 공공기관과 맺어놓은 관계가 다른 나라와 해외사업을 수행할 때 좋은 네트워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해외교류는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요새 북유럽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북유럽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제품에 대한 선호를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한국의 예금보험제도가 믿음직한 선진제도로 후발국가에서 배우고자 하고 싶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회원기관들의 해외 협력사업과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수많은 행사를 기획하는 등 꾸준히 애써주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관계자분들과 모든 회원기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의 경험과 고충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공동 초청연수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몽골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018년 6월 18일(월)부터 6월 22일(금)까지 4박 5일간 ‘몽골 중앙은행 초청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본사에서 진행된 동 행사는 몽골 중앙은행 및 산하 Savings Bank 파산관재사무소 임직원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부실자산 정리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자산 정리 노하우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예결원 업무 소개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연수단은 같은 시기에 부산에서 개최된 해금협 전문가 초청세미나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원사 담당자와 네트워킹 시간을 갖기도 했다.



#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 정례회의

01

### 정기총회 사전회의

<b>일 시</b>	2018년 1월 26일(금) 16:00~18:00
<b>장 소</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b>참여기관/인원</b>	22기관 / 31명

2018년도 해금협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신규사업, 사업범위, 연회비 등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조율하기 위해 부서장급 이상 담당자 사전회의 개최

02

### 2018년도 정기총회

<b>일 시</b>	2018년 2월 5일(월) 11:00~13:00
<b>장 소</b>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16층
<b>참여기관/인원</b>	17기관 / 27명

2017년도 해금협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18년도 해금협 사업 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2018년도 연회비 납부대상 기관 및 금액을 의결하기 위해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03

### 3월 정례회의

<b>일 시</b>	2018년 3월 16일(금) 11:00~12:00
<b>장 소</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b>참여기관/인원</b>	20기관 / 26명

CIFC BiAnnual,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3월 정례회의 개최

##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 04

#### 4월 정례회의

- 일 시** 2018년 4월 20일(금) 16:00~17:00
-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인원** 20기관 / 23명

CIFC BiAnnual,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회원시간 공동 초청연수 지원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4월 정례회의 개최

### 05

#### 5월 정례회의

- 일 시** 2018년 5월 11일(금) 16:00~17:00
- 장 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인원** 15기관 / 22명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사업,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및 6월 정례회의,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연회비 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 및 기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5월 정례회의 개최

### 06

#### 6월 정례회의

- 일 시** 2018년 6월 22일(금) 11:30~12:30
- 장 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층 마이애미룸
- 참여기관/인원** 15기관 / 25명

해금협 홍보 플랫폼 개선사업,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몽골 초청연수, CIMV 금융협력포럼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정례회의 개최





## 기타활동

02

### (금융위원회) 제1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개최

**일 시** 2018년 2월 1일(목) 14:00~15: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서울시, 부산시, 업권별 협의회 등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유관기관간 국제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행사 간 시너지 창출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김정환 센터장이 대표로 참석

05

###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 개최

**일 시** 2018년 5월 3일(금) 10:00~11: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금융연수원, 서울시, 부산시, 업권별 협의회 등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금융분야 대외협력 협의회에 참여하여 해금협 의 주요 협력사업일정을 공유하고 금융분야 新남방정책 추진방향, 금융분야 교육훈련 및 연수 추진방향 등을 논의

# 기고

## 최근 북한의 금융관련 변화와 시사점

박해식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실장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변화를 짚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북한의 주요 변화 중에서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2013년부터 일부 농장이나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특수경제지대의 설치를 확대하는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는 5개의 경제특구와 21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개발구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4개의 중앙급 개발구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17개의 지방급 개발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북한의 체제전환(사회주의 계획경제 → 시장경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개혁적인 성격이 강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북한을 연구하는 기존의 문헌에서는 시장화를 사회주의 계획경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를 제2경제 또는 비공식경제라고도 부르는데 국가에 의한 가격통제를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개혁조치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내용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7·1 개선조치는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어 좀 더 개혁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즉, 7·1 개선조치가 시장을 계획경제 밖의 존재로 취급하였다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거와는 달리 시장을 계획경제 내의 존재로 취급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개혁을 의미한다면 경제개발구 등 특수경제지대 설치의 확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시장개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적 의지를 방증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를 통한 외자유치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사금융시장 양성화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가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집중되었던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내륙지역 일부 포함)되고 있고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수경제지대를 통한 북한의 시장개방이 여전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개방의 파급효과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 축소

국내금융과 관련하여 북한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금공급은 기업(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해주는 국가재정의 집행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기능과 유사하다. 신용은 저금의 형태로 개인으로부터 동원한 유희화폐자금을 기업에게 대출의 형태로 계획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은행 기능과 유사하다.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되는데, 현금유통은 기업과 개인 간/개인 간 상품거래에, 무현금유통은 기업 간 상품거래에 적용된다. 이는 화폐유통의 중앙은행 집중을 통해 통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자금공급 기능을 통해 기업에 공급되는 자금은 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인 반면, 신용 기능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은 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다. 또한 자금공급과 신용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자금공급과 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북한은 기업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통해 공급하였으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신용 기능(대출)을 통해 충당하였다. 자금공급의 대상은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유동자금으로 국가가 거의 전액 중앙은행을 통해 보장하였다. 기본건설자금은 고정재산의 확대를 위한 자금, 대보수자금은 고정재산의 보수를 위한 자금, 유동자금은 원자재 구입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의미한다.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유동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경영상 잘못이 아닌 경우 유동자금 조절펀드를 통해 충당하였다.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유동자금 수요 중에서 경영상 잘못에 의해 발생한 자금수요의 경우에는 은행대출(신용)을 통해 해결하였다.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국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재정의 유동자금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어서 2002년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친 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사실상 국가재정에서 기업 및 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중앙은행 자금공급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은행의 신용 기능(상업은행 기능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대보수자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기본건설자금 중 고정재산의 단순재생산에 필요한 자금(사용기간이 만료된 고정재산의 교체비용)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립한 감가상각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기본건설자금 중 고정재산의 확대재생산과 고정재산의 신규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해서도 일부의 경우 기업이 내부적으로 적립한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즉, 과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재정에서 거의 전액 보장해주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족 완화를 위해 북한은 그동안 기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를 금지해왔던 것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사금융시장에서 개인의 유희화폐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 5월 30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5.30 담화를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2013년부터 일부 농장 및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 생산수단(기계설비, 원료, 자재, 토지, 건물 등)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의 구현을 위해 노동자 중심의 담당책임제와 소득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주문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36년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빠르게 실시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관리체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거 도입하면서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법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이행을 위해 기업에게 이양하여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① 계획권, ② 생산조직권, ③ 노력조절권, ④ 제품개발권, ⑤ 품질관리권, ⑥ 인재관리권, ⑦ 무역 및 합영·합작권, ⑧ 재정관리권, ⑨ 가격제정권, ⑩ 판매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가계획을 축소하고 기업의 독자적 계획에 기반하는 기업소지표를 도입하여 국가의 계획지표를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화학부문의 경우 여전히 전체생산의 70% 이상이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되고 있지만, 경공업부문의 경우에는 국가계획분이 10% 정도이고 나머지 90%를 기업소지표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예산 부족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사금융시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허용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14년 이전에 기업소법은 기업의 재정관리에 대하여 “기업소는 정해진 재정관리 질서에 따라 재정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5.30 담화 이후 2014년 11월 5일에 기업소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확대재생산을 실행하며 경영활동을 원만히 실현해나가야 한다(기업소법 제38조)”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업소법 제38조는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희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예산 부족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공급이 제한적인 상황

# 기고

## 최근 북한의 금융관련 변화와 시사점



에서 은행이나 사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가계획 이외의 생산물을 시장가격에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국가계획 이외의 생산물에 대한 판매수입 중에서 일정부분을 국가에 납부(국가기업이익금)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업의 자율에 따라 자체충당금(내부유보), 임금인상 등의 용도로 경영활동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 처분권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법 제50조에 따르면 “남거나 사장되어 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은 합의가격에 의한 자금담보를 세우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 조건에서 다른 기업소에 이관, 임대하며 이 과정에 이루어진 자금은 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업의 고정재산 처분권은 모든 고정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자금으로 구축한 고정재산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변화

국가재정만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최근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해 정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을 시도한 바 있다. 2011년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가개발은행 설립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해외로부터 투자자금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개발은행의 설립 시도는 북한 당국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 북한 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을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은 특수경제지대 설립을 통해 대외경제협력력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접경지역의 대도시에 국한되었던 특수경제지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경제특구에 비해 소규모, 지방 밀착형 경제개발구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는 국유화 제한, 투자금 회수 보장, 내국민대우 및 자의적 차별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투자법(제19조)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일 경우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제20조)은 또한 외국투자자가 북한에서 획득한 합법적 이윤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회수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 및 자의적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계획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북한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내부자금을 활용한 경제개발 추진

특수경제지대도 정책금융기관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외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금융 양성화를 통해 국내자금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경제난 심화, 국가재정의 악화, 주민배급제 붕괴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사금융시장을 통한 금융거래가 확산되었다. 주민배급제 붕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이 금지된 개인들이 생계 목적의 장사미련 마련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것이 북한 사금융시장의 시초라고 한다.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장사, 무역, 밀수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돈주(전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를 금지하였던 북한 당국이 이를 법적으로 용인함에 따라 국가재정과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사금융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 북한은 국가재정의 악화로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신용 기능(상업은행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 기능을 분리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에 중앙은행법을 제정한데 이어서 2006년에는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여 상업은행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상업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의 원인으로는 은행의 대출재원 부족이 주로 거론되는데, 북한주민들의 은행저금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저금을 국가의 재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의 동원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은행에 맡긴 자금의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특히, 주민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개인이 유희화폐자금을 은행저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유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공식시장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개인들은 재산 노출 등을 우려하여 은행저금보다는 사금융시장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훨씬 크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은행의 대출재원 확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상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예금에 대한 비밀과 예금상환을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의 업무범위에 카드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주민의 카드사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고 직불카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업은행의 설립이 부진하지만, 향후 상업은행의 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수요 증가분을 국가에서 충족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 설립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결론 및 시사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금융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재정에서 거의 전액 보장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법적으로 대폭 허용함에 따라 생산활동 지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재정에서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경제개발구 등 특수경제지대의 설치 확대를 통해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외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 금융협력의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북 금융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빈국 수준인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은 우리나라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융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시장화 확산, 경제발전 수준 개선 시 북한의 자금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북한 진출과 관련하여 은행부문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금융시스템이 은행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고 금융과 관련된 법과 제도도 은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은행 금융회사의 북한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비은행 금융회사보다는 은행의 북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미비한 금융인프라(예: 예금보험제도, 금융감독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북한은 국내은행이 진출하여 금융증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에 앞서 금융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협력 방안(기술지원 포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주요 사업 일정

##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 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8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1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주요사업일정

- 정례회의
- 정기총회
- 초청연수
- 포럼
- 정기 간행물
- 세미나, 강연
- 기타

01/26 부서장급 사전회의  
 01/29 제4회 미안마 주택금융 워크숍  
 02/05 2월 정기총회  
 02/28 CIFC BiAnnual Vol. 2 발간  
 03/16 3월 정례회의  
 03/22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03/31 CIFC 2017년 Annual Report 발간

04/20 4월 정례회의  
 05/11 5월 정례회의  
 05/11 전문가 초청세미나 -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06/21 전문가 초청세미나 - 글로벌 금융 트렌드 파악 및 정부의 ODA 사업 운영 방안  
 06/22 6월 정례회의  
 08/31 8월 정례회의

08/31 전문가 초청세미나 - 금융분야 신남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주요 협력 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 강화방안 검토  
 08/31 CIFC BiAnnual Vol. 3 발간  
 09/14~19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10/01 해금협 신규 홈페이지 출범  
 10/12 10월 정례회의  
 11/23 11월 정례회의  
 12/3~6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12/14 12월 정례회의



발행일 | 2018년 8월 31일  
발행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관 6층  
전화 | 02-3705-6353  
팩스 | 02-3705-6285  
홈페이지 | [www.cifc.or.kr](http://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